

## 『취학전 및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』에 대한 토론

김 광 웅(숙명여대)

발표하신 내용중 상당부분이 우리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, 실상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변명을 제기할 만한 구석은 별로 없는 것 같다.

우선 몇가지 우리가 다시 짚어 봐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

첫째, 영재(英才)라는 용어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경고를 들 수 있다. 그 결론은 ‘영재라는 말은 조심스럽게, 겸손하게 제한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이에게는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’는 것인데, 적극 동감하는 바이다.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그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. 막말로, 영재라는 용어는 시장바닥에 그냥 막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‘어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,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만’ 사용될 “시(時)”를 놓쳐버린 것이다. 영재 이외의 다른 말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. 아니면, “영재”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여 그렇게 적당히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.

아마도 우리의 주술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부 부모들에게는, ‘어려서부터 「영재」라는 이름을 붙여주고, 이른바 「영재교육」이라고 표방하는 교육을 받으면 결국은 영재가 될 것’이라고 믿는 무의식적 동기가 깊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. 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는 그 효험을 보았다고 할 때가 올 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... . 그렇다면, 오히려 ‘영재라는 말, 쓰고싶으면 마음

대로 써라' 다만 '그 책임은 당사자가 져라'는 입장이 피차의 불편을 더는 일일 것이다. 어떤 분이 "그 아이가 영재성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? 한 번 해봐야 알지요."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상념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우리의 일부 현실을 보면 아무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('초등학교 조기 입학 후 상당수가 적응에 실패하여 교육을 포기했다'는 신문기사의 내용도 이런 세태의 한 면을 증명해 주는 것이리라). 그러나 '한번 해본다'는 말속에 「노력」과 「환경조성」이라는 의지가 깊이 담겨있다면 이 또한 과잉기대라고 매도할 수만도 없는 미묘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.

둘째,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와 월반제에 대한 이교수님의 비판적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. 새로운 교육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'어느 날 아침 벼락치기로 발표하여 시행하는 방식'으로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. 이론상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수용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준비와 투자(시간과 물질), 그리고 그 제도를 소화해야 하는 교육풍토에 대한 충실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. 우리는 이 두 가지, 영재교육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무런 준비도, 투자도 또 교육풍토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본다. 뭐든지 한 번 시작만 해 놓고 '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도록 하면 되지, 또 되겠지'하는 주먹구구식 접근이라면 교육정책적 논의나 제도적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.

셋째, 발표자께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안한 몇 가지, 즉, 교육전문가들로 팀웍을 이룬 장학제도의 개선, 무학년제의 도입, 다양한 심화교육 및 풍부한 프로그램의 도입, 그리고 영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키워져야 한다는 등 우리가 꼭 해야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안들임에 틀림없다.

이교수님의 말씀에 몇 가지를 덧붙여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다.

그 하나는 유아교육이든 초등교육이든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영재와 영재교육(명칭을 영재라고 하든 또는 우수아라고 하든)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여기에서는 주로 장애아 교육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. 우리 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영재아는 특수교육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. 따라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영재교육을 향한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사양성교육과정과 연수과정에 영재와 영재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식교과로 삽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.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.

둘째, 영재의 발달과 영재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. 앞의 첫 번째 논의는 모든 유아교사와 초등학교교사가 영재와 영재교육

에 대한 기초적 이해라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, 여기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전문적 수준에서 연구분야나 일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 아울러 별도의 자격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.

셋째, 영재아를 위한 연구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. 영재를 얻고 싶은 욕심은 크면서도 국가의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려는, 즉 돈 안 드는 제도만 손대는 식의, 지나치게 경제논리에만 집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.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연구팀이 있는 바 그 결과가 기대된다. 아울러 현재 시중에 난립해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적절한 「質」 관리, 나아가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 여기에는 정부의 몫도 있고 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의 몫도 있고, 전문가들의 몫도 있을 것이다.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상호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.